

# 다시 반등한 수출... 적은 조업일수에 거둔 성과 '긍정적'

### 11월 수출 4% ↑ ... 무역 수지 7개월 연속 흑자

### 하루 평균 수출액 6.3% ↑ ... 수입은 2.1% 줄어

### 총수출·일평균 모두 강세... 18년 11월 이후 처음

### 반도체·車·조선 등 15대 주력 품목 中 10개 호조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 9월에 반짝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은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의 수치를 근거로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도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인다.

#### ◇“수출 회복 모멘텀 지속... 불씨가 이어가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 수출이 458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늘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398억8000만 달러로 2.1% 줄었다. 무역수지는 59억 3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 기조

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3.6%)과 9월(7.3%) 이후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인 3월(-1.7%)부터 4월(-25.6%), 5월(-23.8%), 6월(-10.9%), 7월(-7.1%), 8월(-10.3%)까지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왔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19억9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총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이 모두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2년간 총수출 또는 하루 평균 수출이 증가한 달은 6번 있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업일수가 적은 상황에서 총수출액이 플러스 실적을 낸 것은 2018년 3월 이후 32개월 만이다. 지난달 조업일수는 전년 대비 0.5일 적었다.

산업부는 9월과 10월에 이어 11월

에도 수출 회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은 세 달 연속으로 총수출액 400억 달러 이상, 하루 평균 수출액 19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 5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올해 2분기 이후 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 11월까지 4분기 월평균 수출액은 약 4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0.02%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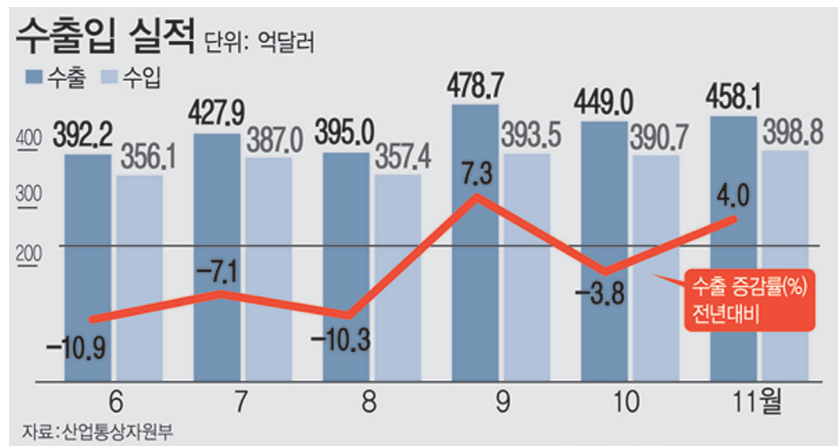
이 수치는 지난 2분기 368억 달러(-20.3%)를 기록한 바 있다. 1분기와 3분기는 각각 4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3.4% 적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어렵게 회복한 수출 활력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우리 수출구조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발표한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을 통해 우리 수출 시스템의 디지털·온라인화와 이를 통한 무역구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책을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 강세

지난달 우리나라 15대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에서 수출 증가



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반도체(16.4%), 디스플레이(21.4%), 무선통신기기(20.2%), 이차전지(19.9%), 가전(20.3%), 컴퓨터(5.6%), 바이오헬스(78.5%), 자동차(2.1%), 차부품(6.5%), 선박(32.6%)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85억 9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최근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산업부는 “새로운 모바일 제품 출시와 점유율 경쟁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메모리 등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으로 노트북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수출액은 39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차부품의 경우 6.5% 늘어난 18억 9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 경차 수출 비중 증가에 따른 단가 상승이 호재로 작용했다.

또한 국내 소형 SUV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3개월 연속 자동차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선박 수출액도 32.6% 늘어난 1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컨테이너선 등 수출 통관 호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각각 21.4%, 20.2% 늘어난 19억 3100만 달러, 14억5300만 달러로 집

계됐다. 컴퓨터와 가전 수출액은 각각 6억5000만 달러, 10억 달러로 5.6%, 20.3% 증가했다.

반대로 철강(-4.6%, 23억 달러), 일반기계(-7.0%, 42억7000만 달러), 석유제품(-50.6%, 16억9000만 달러), 석유화학(-8.3%, 29억5000만 달러), 섬유(-6.3%, 10억2000만 달러)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아시아 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이 지역에서 총수출과 하루 평균 수출이 동시에 플러스 실적을 낸 것은 3년 만이다.

교역 규모가 가장 큰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120억1000만 달러로 1.0% 늘었다.

대(對)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액은 각각 6.8%, 24.6% 증가한 66억 9000만 달러, 49억1000만 달러이다.

아세안과 인도 수출액은 각각 6.4%, 10.3% 확대된 79억6000만 달러, 11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액도 5.3% 늘어난 1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외에 일본(-12.0%, 21억2000만 달러), 중동(-21.0%, 12억5000만 달러), CIS(-34.1%, 9억1000만 달러) 지역으로의 수출은 부진했다.

서선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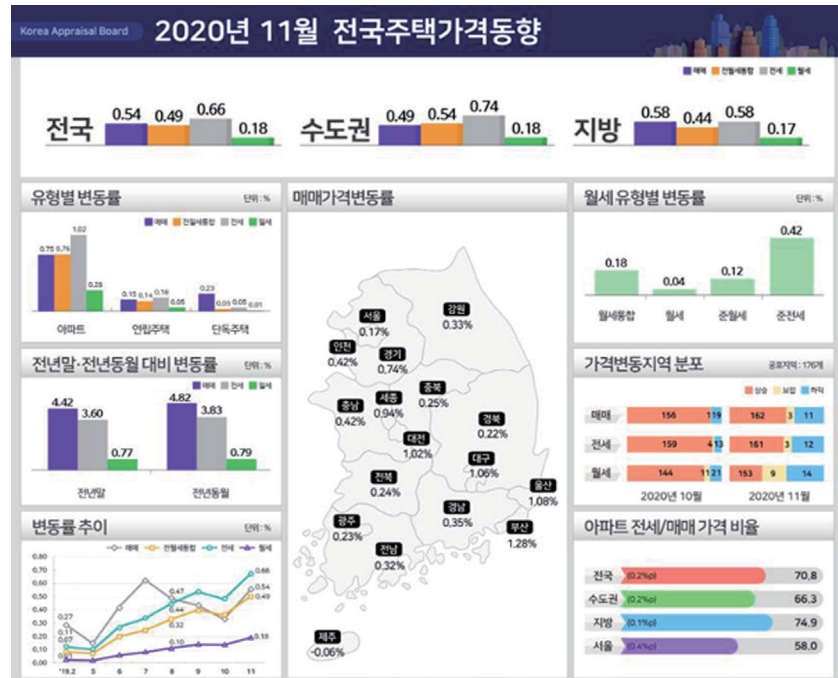
#### “추운 날씨 목도리 장만하세요”

1일 서울 중구 봉래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객이 퍼 목도리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전점에서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아동용 경량 방한 슬리퍼와 방한 슬리퍼 및 퍼로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방한슬리퍼를 2족 구매시 50% 할인 판매하며, 겨울 기모 양말 및 타이즈를 2개 구매시 30%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사진=롯데마트 제공)

1일 서울 중구 봉래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객이 퍼 목도리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전점에서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아동용 경량 방한 슬리퍼와 방한 슬리퍼 및 퍼로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방한슬리퍼를 2족 구매시 50% 할인 판매하며, 겨울 기모 양말 및 타이즈를 2개 구매시 30%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사진=롯데마트 제공)

## 올해 집값 상승률, 9년 내 최고 전망...11월 누적 4.42% ↑

### 유동성 확대·공항공매 등에 상승 추세 지속



올해 전국 집값 누적 상승률이 9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국 집값은 지난해 12·1차 대책 이후 정부의 규제 공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

이 나타나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는 지난 7월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신규 전세 수급난으로 전셋값마저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며, 다시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 ‘소상공인 신용대출’ 뛰어든 네이버...최저 금리 3.2%

### 3개월 연속 월 100만원 매출 유지 조건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영업이 어렵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 소외계층인 온라인 중소기업(SME)을 위한 서비스다.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3개월간 월 100만원 매출만 유지되면 비교적 적정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네이버파이낸셜 설명이다.

기존의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 높은 폐업률 등을 이유로 대부분 담보·보증을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실제 대출 가능 한도와 승인율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사업자들은 연 15~24%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매출 흐름, 단골 고객 비중, 고객 리뷰, 반품률 등 스마트스토어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와 함께 네이버 머신러닝 알고리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해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만들었다.

실제 대출 신청과 실행은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진행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는 지난 7월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신규 전세 수급난으로 전셋값마저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며, 다시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잠잠하던 지방 중소도시마저 매매·전세가격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동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다세대·연립, 월세까지 뛰며 시장 전반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중합(공동주택·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전세가격은 0.54% 올라, 지난 달(0.32%)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4.42%로, 지난해 같은 기간(-0.73%) 대비 상승 반전했다. 현재로서는 지난 2011년 연간 상승률 6.14%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민정기자

###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등록말소·稅혜택 환수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관리관계 제공 의무**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등기부등본만 때 봐도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결정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 등기를 마친 경우 시행 후 2년 내에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따로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관리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신봉우기자

###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3개월 연속 매출 100만원 이상이면 1분기면 환율도 금리 확인! 서류발급, 자영업, 수수료 NO!

의 지정대리인으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담당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고, 금리는 연 3.2~9.9%를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김미희기자